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0년 2월
석사학위 논문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박 다 영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The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Relational Aggression

2020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박 다 영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김택호

이 논문을 상담심리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박다영

박다영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 수 권해수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정승아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김택호 (인)

2019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I. 서론	01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1
B. 연구문제	06
II. 이론적 배경	07
A. 관계적 공격성	07
1. 관계적 공격성의 개념 및 특징	07
B. 내현적 자기애	09
1. 내현적 자기애의 개념 및 특징	09
2.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	14
C. 거부민감성	15
1. 거부민감성의 개념 및 특징	15
2. 내현적 자기애와 거부민감성의 관계	17
3. 거부민감성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	19
D. 내현적 자기애와 거부민감성 및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	20

Ⅲ. 연구방법	22
A. 연구대상	22
B. 측정 도구	23
1. 관계적 공격성 척도(PCS)	23
2. 내현적자기애 척도(CNS)	24
3. 거부민감성 척도	25
C. 분석 방법	26
Ⅳ. 연구결과	27
A. 기초통계분석	27
1.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	27
2. 주요 변인의 상관분석	28
B.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30
1. 측정모형 검증	31
2. 구조모형 검증	33
3. 매개효과 검증	34
Ⅴ. 논의 및 제언	35
1. 요약 및 논의	35
참고문헌	38
부 록	47

표 목 차

<표 II-1> DSM-5 자기애성 성격장애 진단기준	11
<표 II-2> Akhtar와 Thompson의 자기애 하위유형 구분	13
<표 III-1> 인구 통계학적 변인	22
<표 III-2> 관계적 공격성 척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23
<표 III-3>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24
<표 III-4> 한국 대학생 거부민감성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25
<표 IV-1> 주요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28
<표 IV-2> 주요 변인의 상관분석	29
<표 IV-3> 측정모형의 적합도	30
<표 IV-4>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32
<표 IV-5> 연구모형의 적합도	33
<표 IV-6>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33
<표 IV-7> 매개효과 검증	34

그 립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 1	06
[그림 2] 측정모형	31
[그림 3] 연구모형 2	34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Relational Aggression.

Park, Da Yeong

Advisor : Prof. Kim, Tack Ho Ph.D.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verified the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relational aggression. The subject were 356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who were attending the four-year university located in G Metropolitan City. To measure the relational aggression, the Peer Conflict Scale (PCS) was used, the covert narcissism scale (CNS) was used to measure covert narcissism, and the Korean University Rejection Sensitivity Scale was used to measure rejection sensitivity.

The conclusions of the present study are thu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orrelation results among covert narcissism, relational aggression, and rejection sensitivity showed that covert narcissism and relational aggression, and rejection sensitivity had a positive correlation.

Second, the study results about the effect of covert narcissism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 relational aggression showed that covert narcissism had a significant effect on relational aggression.

Third, the study results about the effect of covert narcissism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 rejection sensitivity showed that covert narcissism had a significant effect on rejection sensitivity.

Fourth, the study results about the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 relational aggression showed that rejection sensitivi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relational aggression.

Fifth, the study results of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relational aggression showed that exploitation/self-centeredness and oversensitivity/vulnerability among sub-factors of covert narcissism had a mediating effect on relational aggression and rejection sensitivity.

Accordingly, this study contributed to the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in the effect of covert narcissism of university students on relational aggression thereby confirming that the relational aggression was higher as covert narcissism and rejection sensitivity were higher.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타인과 함께 살아간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를 형성하고 발달시키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통해 건전한 성격발달과 애정, 친밀감에 대한 욕구, 수용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킨다(Sullivan, 1953).

특히 대학생 시기는 Erikson(1968)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 가운데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다양한 사회적 관계 및 친밀한 이성관계의 시작과 함께 부모로부터 분리되어가는 등 관계변화의 초입이라는 점에서 많은 변동이 예상되는 시기이다(홍정미, 2006).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정, 사랑 등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고립감을 가지게 되며(Erikson, 1968), 우울 불안 등의 심리 사회적 문제 및 적응의 어려움(Crick, & Collins, 2002), 높은 비율의 정신 병리가 발생된다(Stallman, 2010)고 하였다.

대인관계에서 적응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도 하지만, 부적응할 경우 관계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타인을 따돌리기도 하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한다.

따돌림은 공격성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 공격성으로 인한 폭력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폭력성은 점점 잔혹해 지고 있고, 직접적인 신체 폭력뿐만 아니라 집단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 간접적인 폭력 역시 만연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정다운 외 2015). 아동과 청소년에 국한되던 따돌림 현상이 성인 사회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관계적 공격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공격성의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지만, 행동 뿐만 아니라 의도나 동기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로써의 정의가 받아들여지고 있다(곽금주, 1992; 윤완기, 1994). 공격성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뿐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나 동기를 가지고 타인에게 가하는 신체적, 언어적 행동과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고 및 정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Buss & Perry, 1992). 초기 공격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성차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며, 남성이 여성보다 더 공격적이라는 결과를 토대로 외현적 공격성에 초점을 맞춰 왔다(Andereou & bonoti, 2010). 그러나 공격성에 대한 견해는 학자의 관심 영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심주한, 유형근, 손현동, 2008), 외현적 공격성

(overt aggression)과 내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으로 구분되고, 90년대부터 관계적 공격성은 공격성의 한 유형으로써 본격적으로 다뤄진다(Crick & Grotpeter, 1995).

관계적 공격성에서 ‘관계’는 해를 입히는 수단으로서 사용되는데 악의적 소문, 거짓말, 가십이나 비밀을 퍼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조용한 대응), 활동이나 그룹상호작용으로부터 한 사람을 배제 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Crick & Grotpeter, 1995). 관계적 공격성은 표현방법이 개인적인 정보를 얘기하겠다고 협박하는 식의 직접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식의 간접적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표현방법에 상관없이 관계나 소속감을 손상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배라영, 최지영, 2018). 관계적 공격성은 외부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외현적 공격성보다 정신적 피해 정도가 크고 지속기간이 길어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Crick, Bigbee, Howes, 1996).

관계적 공격성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사교적이며, 우호적인 성향이 높고, 자신의 공격성을 직접적으로 표출했을 때 받게 될 사회적 비난을 의식하고, 이를 두려워한다. 따라서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은밀하게 표출한다(이하연, 2014; 이홍, 김은정, 2012; 박민정, 최보가 2004)고 보았다. 그러므로 집단 내에서 공격을 당하는 당사자 이외에는 알기 어렵고 타인의 중재가 어려우며(김정균, 장석진, 2014), 사회적 관계를 손상시키고 조작하여 집단의 일원을 소외 시킨다(Crick, Ostrov, & Werner, 2006).

우리나라의 관계적 공격성 연구는 주로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배라영, 최지영 201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계적 공격성과 아동·청소년의 인지, 정서, 사회성 등의 개인적 특성(한영경, 김은정, 2011; 전아영, 2018)이나 정서적 학대(변은실, 이주영, 2016), 또래관계(홍상황, 박우람, 2016)와 관련되어 연구되었고, 국내연구(김현아, 장혜인, 2016; 노우빈, 홍혜영, 2016; 이지후, 2015; 임정우, 홍혜영, 2016)에서도 개인의 내적 특성에 대한 영향에 관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국외 연구(Bagner et al., 2007; Czar et al., 2011; Dahlen et al., 2013; Goldstein et al., 2008; Gros, Gross, & Simms, 2010; Linder, Crick, & Collins, 2002; Ostrov & Houston, 2008; Storch et al., 2004; Werner & Crick, 1999)에서는 친구관계와 애정관계가 구분되어 연구되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관계적 공격성은 우울, 불안, 알코올, 약물사용(Bagner, Storch, & Preston, 2007; Dahlen, Czar, Prather, & Dyess, 2013; Goldstein, Chesir-Teran, & McFaul, 2008)의 심리사회적 부적응과 경계선 성격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Ostrov &

Houston, 2008)등 정신장애와도 관련되어 더욱 심각해지는 경향성을 보고하였다.

관계적 공격성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공격적이라는 주장(Maccoby & Jacklin, 1974; Olweus, Mattson, Schalling, & Low, 1980; Parke & Slaby, 1983; Ruble & Martin, 1998)에 대해 공격성이 여성보다 남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물리적, 언어적 형태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안하며 대두되었다(배라영, 최지영, 2018). 관계에 초점을 맞춘 관계적 공격성은 여성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공격성이라는 점이 부각되며(Crick & Grotpeter, 1995) 공격성의 성차의 관점에서 연구가 확대되어 진행되어 왔다. 관계적 공격성의 성차에 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유·아동기, 청소년기에서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관계적 공격성이 높았지만(Crick & Grotpeter, 1995; Little, Rhemtulla, Gibson, & Schoemann, 2013; Ostrov & Crick, 2007) 성인으로 갈수록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성차가 줄어들을 알 수 있다(Loudin, Loukas, & Robinson, 2003).

이러한 관계적 공격성은 자기애의 하위유형으로 구분되는 내현적 자기애와 정적 상관성이 있다(김정균, 장석진, 2014). 선행연구에서는 정신장애 진단기준에 부합한 외현적 자기애와 공격성의 관계를 주로 다루었지만, 근래 점차 내현적 자기애의 외현적 자기애보다 더 역기능적인 특성들이 보고되고 있다(Hibbard, 1992). 또한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과 정적인 상관(Barry, Picard, & Ansel, 2009), 자기애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Baumeister, Bushman, & Campbell, 2000, Salmivalli, 2001)등이 밝혀졌다.

‘자기애’란 우월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에 대한 사랑을 일컫는 말로, 그리스 신화의 Narcissus라는 젊은 남자가 연못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아름다워 사랑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 결국 연못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자체성애: 심리학적 연구’에서 심리학자 Ellis(1898)는 ‘자기애’라고 일컬어지는 나르시시즘을 처음 소개하였다.

자기애는 우월감, 거만한 행동, 자기를 향하는 타인들의 관심과 경외를 지속적으로 받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하는 고양된 자기개념으로 정의된다(Bogart, Benotsch, & Pavlovic, 2004). 그리고 양가적인 자존감과 병리적인 웅대성이 공존하는 것이 핵심적인 특징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타인에 대해 강한 분노감을 갖고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자기애(Salmivalli, 2001)는 자기애적 성향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외현적 자기애(overt narcissism)와 자기애적 성향을 감추고 있는 내현적 자기애(covert narcissism)로 구분된다(Wink, 1991). 내현적 자기애는 자기중심적이며 거대화된 자기 환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외현적 자기애와 유사하다. 하지만 고유 취약점인 자기상의 상처에 예민하기 때문에 타인의 반응이나 평가에 민감하다는 점에서 핵심적 차이가 있다.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반응에 과도하게 신경쓰고 위축되어 있으며 수줍어하고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을 불편해 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비판적인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며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쉽게 느낀다(Akhtar & Thomson, 1982; Kohut, 1977).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을 살펴보면 대인관계 행동에서 볼 수 있다. 외현적 자기애는 ‘자신의 위대함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존재’로서 타인을 인식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자신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받아들여지는지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지 않은지를 잘 깨닫지 못한다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반응에 대한 자각이 없고 오만하며 공격적이고 자기도취적이다(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타인에 대해 ‘자신을 좋아하고 받아들이는 존재’로 여긴다. 이들은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늘 염려하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나 상황에 대해 과민반응하고 대인관계에서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려고 한다(권석만, 한수정, 2000).

거부민감성(rejection sensitivity)이란 타인과의 관계에서 거부를 더 잘 지각하여, 거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기 불안과 분노를 느껴 과민하게 반응하는 인지-정서적 과정이다(Downey & Feldman, 1996). 이는 의미있는 타인, 즉 친밀한 관계에서 경험되는 거부 상황에 대한 방어적 반응이 핵심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Ayduk et al, 2003). Bowlby(1980)는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정서적 거부를 경험한 사람은 스스로 중요한 타인에게 거부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Feldman과 Downey(1994)는 초기거절경험에서 발달된 내적작동모델과 인지-정서적 처리과정을 통해 거부민감성이라 개념화 했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친밀한 이성관계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거부민감성은 사회적 상황에서 위협이 존재할 때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신경 방어체제로도 볼 수 있는데(Downey, Mougios, Ayduk, London, & Shoda, 2004) 이들은 사회적으로 위협을 느낄만한 단서에 반응식역치가 낮아 위협적인 표시에 집중하고 강한 정서반응을 일으킨다(Canyas, Downey, Berenson, Ayduk, & Kang, 2010). 또한 이로 인해 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격렬한 행동을 보여 추가적인 거절 경험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yduk, & Downey, 2001). Downey, Freitas, Michaelis과 Khouri(1998)의 연구에서도 거부민감성이 높은 여성은 거부민감성이 낮은 여성보다 이

성관계 갈등 이후 더 많이 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들을 통해 가까운 상대와 밀착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부, 애정상실에 대한 불안인 친밀감 두려움과 관련하여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친밀한 관계를 시작하거나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성정아, 홍서영, 2014).

많은 경험적 연구에서도 거부민감성이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임을 보고하고 있는데(박우람, 홍상황, 2015; 서수균, 2009; 홍상황, 이정연, 2013; Ayduk, Gyurak, & Luerssen, 2008), 더 나아가 거부민감성이 높으면 대인 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억제하는 경향성으로 인해(Ayduk et al., 2003), 은밀하고 우회적으로 표현되는 관계적 공격성과도 관련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관계적 공격성은 거부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지지되었다(김현진, 2018; 김희경, 2016; 배라영, 2017; 이정미, 2016). 자세히 살펴보면 거부민감성이 높으면 거부당하고 소외된 경험이 많아 상대방의 의도를 부정적이고 공격적으로 해석하여 이로 인해 공격적 성향을 나타낸다는 연구(Patterson, Kupersmidt, & Charlotte, 1992)와 거부민감성과 상대방의 의도의 대한 적대적 귀인이 공격적인 행동을 예언한다는 연구(박주연, 2010), 아동의 거부민감성의 발달이 낮은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의 매개를 통해 관계적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선미, 2014), 아동의 정서조절과 질투, 시샘이 거부민감성과 관계적 공격성에 순차적으로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박우람, 홍상황, 2015)가 있다.

내현적 자기에와 거부민감성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대학생들도 외현적 자기에 성향의 대학생들 만큼의 분노를 느끼고, 이를 표출하고자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내현적 자기에의 특성상 자신의 공격성을 외부로 나타내기 보다는 참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대학생 시기의 공격성이 관계적 공격성, 반응적 공격성과 관련이 높다는 것과 연결 지을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공격성은 반응적 공격성, 주도적 공격성 뿐만 아니라 외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을 포함시켜 측정할 필요가 있으며,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에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에와 관계적 공격성 및 거부민감성의 전반적인 관계를 살펴보고, 내현적 자기에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B. 연구문제

본 연구는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관계적 공격성, 거부민감성의 전반적인 관계를 살펴보고,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와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내현적 자기애, 관계적 공격성, 거부민감성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가설 1-1.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은 정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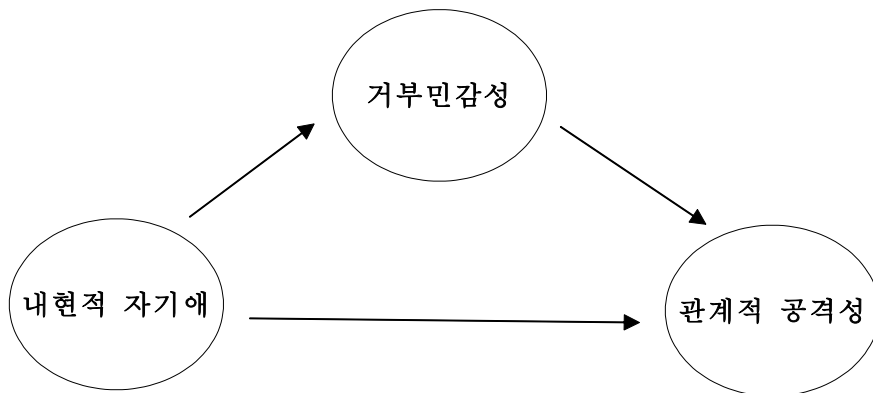
연구가설 1-2. 내현적 자기애와 거부민감성은 정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1-3. 거부민감성은 관계적 공격성과 정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연구가설 2-1.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은 매개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모형은 아래 [그림 1]와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1

II. 이론적 배경

A. 관계적 공격성

1. 관계적 공격성의 개념 및 특징

관계적 공격성의 개념을 알아보기 전에 공격성(Aggression)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공격성은 타인에게 피해를 가하는 것으로, 학자에 따라 접근하는 방향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Buss(1963)는 공격성을 행동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다른 대상에게 유해한 자극을 주는 반응”으로 정의했다. Coie와 Dodge(1998)는 공격성을 의도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주려는 의도를 가진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Bandura(1973)는 공격성을 개인적, 사회적, 상황적 요인들의 영향을 고려하여 “상처를 입히거나 파괴적인 행동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판단”으로 정의하였다.

공격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을 살펴보면, 본능적 관점으로 Freud(1933)는 인간은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죽음 본능(타나토스)을 타고났으며, 이러한 공격적 본능은 억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에너지가 절정까지 올라가면 그 후에는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밖에 표출될 수 없다고 보았다. 또 동물행동학자 Lorenz(1966)에 의하면 인간과 동물은 공격적 본능을 가지고 있으며, 개체를 보존시키는 기능을 하고, 힘이 가장 센 동물이 그 종을 계승시킨다고 하였다.

학습적 관점에서 초기 학습이론을 제안한 Dollard(1939)는 기대한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 겪게 되는 좌절에 의해 공격성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Berkowitz(1965)는 이와 관련하여 항상 좌절에 의해서만 공격 행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경험에서 공격적 단서와 분노, 공격적 습관에 의한 공격적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Bandura(1973)는 공격성을 “관찰학습에 의한 사회행동의 습득”으로 보았으며, 공격하는 이가 공격을 통해 이득을 얻고, 목표를 달성할 때 공격적 습관이 유지된다고 보았다. 인지적 관점에서는 사고나 해석, 정보처리에서 개인의 인지적 영역을 강조하였다. Dodge(1986)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공격적 해결책이나 비공격적 해결책을 어떻게 선택하게 되는지에 대해 사회정보처리모델로 설명하였다. 서로 다른 심리·정서적 상태와 사회정보처리편향이 있는 아동들은 도발이나 해로운 행동을 매우 다른 방식으로 해석

하고 반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배라영, 2017. 재인용).

공격성의 연구 초기에는 공격성이 주로 남성의 전형적인 행동으로 간주되면서, 신체적 공격성과 외현적 공격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어오다가 Crick과 Grotpetter(1995)가 여아는 남아와 다른 독특한 공격성을 보인다고 제안하면서 성차와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성차, 발달 단계 및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연구 동향은 관계적 공격성이 여성에게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연구결과들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성차의 구분 없이 연구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다(Merrell, Buchanan, & Tran, 2006).

Crick와 Grotpetter(1995)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발표된 공격성의 유형을 통합하여 두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첫째는 외현적 공격성이며 두 번째는 관계적 공격성이다. 먼저 외현적 공격성은 개인이 타인을 의도적으로 해하려는 신체적 또는 언어적 공격을 포함한 직접적인 공격의 형태이다. 관계적 공격성은 집단 내에서 집단의 힘으로 압력을 이용하여 한 개인을 위협하거나 소외, 배제하는 집단적이고 간접적인 공격의 형태를 의미한다(허순향, 2005 재인용).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이란 대인관계나 집단소속을 손상시키려는 의도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계(Relational)의 중요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관계적 공격성은 악의적 소문, 거짓말, 가십이나 비밀을 퍼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조용한 대응), 활동이나 그룹상호작용으로부터 한 사람을 배제 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Crick & Grotpetter, 1995).

관계적 공격성은 목적 및 기능에 따라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과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으로 분류된다(McNeilly-Choque, 1996).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Proactive Relation Aggression)은 관계 속에서 목표지향적인 태도를 통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성과 고의성이 담긴 의도된 행동이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다른 사람들에게 친구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과 같은 관계적으로 공격적 행동을 표출한다.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Reactive Relational Aggression)은 집단 안에서 지각된 위협과 도발적인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관계 안에서 배제시키는 등 보복적인 반응으로 표현되는 것이 특징으로 자신이 어떤 모임에 초대받지 못했을 때 미래에 그 사람을 배제시키는 것처럼 타인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받아들이고 강렬한 분노의 감정에 의해 촉발된다(Caron, 2011).

관계적 공격성이 발달과정에서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Crick, 1997; Crick & Grotpeter, 1995) 그간 그동안 우리나라의 관계적 공격성 연구는 주로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된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공격성이 연령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면서, 이는 성인이 될수록 학습의 영향으로 타인을 공격하는 행동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임을 인지하기 때문에 공격행동이 줄어드는 이유도 있겠지만, 학교라는 집단생활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공격성의 경우 측정되기 어려운 이유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최지영, 배라영, 2014). 또한 관계적 공격성은 사회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모든 연령층에서 경험될 수 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연구의 대상이 확장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김현진, 김혜란, 2018).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계적 공격성과 아동·청소년의 인지, 정서, 사회성 등의 개인적 특성(한영경, 김은정, 2011)이나 또래관계, 가족관계 등의 환경적 특성(변은실, 이주영, 2016)과 관련되어 연구되었고, 소수의 대학생 연구에서 관계적 공격성과 자기애, 수치심 등의 자아특성(노우빈, 홍혜영, 2016; 임정우, 홍혜영, 2016)과 사이코패스 성향(이지후, 2015) 연구가 이루어졌다. 반면 외국의 연구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대학생 이상 성인의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관계적 공격성은 우울, 불안, 알코올, 약물사용(Bagner, Storch, & Preston, 2007; Dahlen, Czar, Prather, & Dyess, 2013; Goldstein)의 심리사회적 부적응과 경계선 성격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Ostrov & Houston, 2008)등 정신장애와도 관련되어 더욱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B. 내현적 자기애

1. 내현적 자기애의 개념 및 특징

1) 자기애에 대한 이해

‘나르시시즘(Narcissism)’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며 그리워하다 물에 빠져 수선화가 된 ‘나르키소스(Narcissus)’와 관련되었고, 자기애적 병리 현상을 가리키며, 독일의 정신과 의사 Näge가 처음 사용한 ‘narcissmus’라는 용어에서 유래되었다. 자기애는 Freud와 Kohut, Kernberg 등의 학자들을 거치면서

개념이 확립되었다.

Freud(1914)는 자기애를 ‘자기에 대한 리비도의 몰입’이라고 보고, 일차적 자기애와 이차적 자기애로 구분지었다. 아동은 자신이 올 때마다 주변에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경험을 통해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며, 건강하게 형성된 일차적 자기애는 외부와 자신과의 구분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차적 자기애로 발전하게 된다(제순하 2010).

Freud는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일차적 자기애에 고착되어 있는 사람들을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로 분류하였다. 자기애는 행동적 현상으로 자기-존경, 자기-사랑, 자기-과대화 등과 같은 자신에 대한 태도와 함께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취약성, 이상화, 과대망상, 부인, 분리, 투사와 같은 방어적 지향성, 완벽함에 대한 추구,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특권의식 등이 있다.

Kernberg(2004)는 자기애의 원인을 냉정하고 애정결핍적인 양육방식으로 보았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아동은 자신을 사랑받지 못할 존재 또는 나쁜 사람이라고 느끼고 이러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장점을 과장해서 생각하고 해석하며, 웅대한 자기상을 발달시킨다. 동시에 실제보다 더 가혹적이거나, 따뜻한 사랑과 애정이 넘치는 이상적인 부모상을 품게 된다. 그는 이러한 웅대한 자기상, 부정적인 부모상, 이상적인 부모상이 융합되면서 자기애적 성격이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겉으로는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타인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자기애적 성향을 ‘자기애적 모순(narcissistic paradox)’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자기애적 성격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대 자기와 이상화를 취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기심리학을 발달시킨 Kohut은 자기애를 정상적인 발달 단계의 하나로 보았다(강선희, 정남운, 2002). 유아는 부모와의 관계속에서 거대 자기를 형성하게 되고 이것이 적절한 공감과 적절한 좌절을 통해서 점차 현실적이고 성숙한 자기상을 형성해 간다. 만약 유아가 자신의 자기애적 패턴을 부모로부터 수용받지 못하거나 또는 전혀 좌절경험이 없거나, 이상화된 모델링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웅대한 자기상에 더욱 집착하게 되고, 이것은 병리적인 과대 자기상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

자기애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자기애적 성격장애가 DSM-III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에 처음 등장하게 된다. 이는 자기애와 관련된 후속 연구들을 활성화 시켰다. 이후 DSM-IV에서 진단기준이 수정되었고, DSM-5에 재개정되었다.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진단기준은 자기와 타인에 대한 태도가 광범위하게 왜곡

된 장애로 칭찬에 대한 욕구, 공감 결여, 공상이나 행동에서의 과장성 등의 광범위한 양상이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규정하였지만, 자기애를 연구한 수많은 연구자들에 비해 자기애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 그 첫 번째 이유로 ‘자기애’라는 용어가 서로 다른 차원의 현상들로 설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 이유로 연구자마다 자기애의 기저의 심리적 기제, 발달과정, 범위와 양상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았다(류수정, 2014). DSM-5에서 진단명으로 사용되는 ‘자기애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1> DSM-5 자기애성 성격장애 진단기준

자기와 타인에 대한 태도가 광범위하게 왜곡된 장애로 공상이나 행동에서의 과장성, 칭찬에 대한 욕구, 공감의 결여가 생활 전반에 나타나며 다음의 특성 중 5개 이상의 항목을 충족시켜야 한다.

- (1)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된 지각을 갖고 있다.(예: 자신의 성취나 재능을 과장함, 뒷받침할 만한 성취가 없으면서도 우월한 존재로 인정되기를 기대함).
 - (2) 무한한 성공, 권력, 탁월성, 아름다움 또는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공상에 집착한다.
 - (3) 자신이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라고 믿으며, 특별하거나 상류층의 사람들만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그런 사람들(혹은 기관)하고만 어울려야 한다고 믿는다.
 - (4) 과도한 찬사를 요구한다.
 - (5) 특권의식을 가진다. 예컨대, 특별대우를 받을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특별대우나 복종을 바라는 불합리한 기대감을 가진다.
 - (6) 대인관계가 착취적이다. 예컨대, 즉 자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들을 이용한다.
 - (7) 감정이입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타인들의 감정이나 요구를 인정하거나 확인하려 하지 않는다.
 - (8) 자주 타인들을 질투하거나 타인들이 자신에 대해 질투한다고 믿는다.
 - (9) 거만하고 방자한 행동이나 태도를 보인다.
-

2)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

자기애 척도의 상관관계가 낮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Wink(1991)는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라는 두 가지 하위 유형을 제시하였다. 그는 ‘웅대성-과시성(grandeur

& exhibitionism)’, ‘취약성-민감성(vulnerability & sensitivity)’ 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속성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자기애를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분류 가능함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자기애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외현적 자기애보다 내현적 자기애가 더 역기능적이고 부적응적이라고 설명한다.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의 경우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자기고양 효과를 보이게 되고, 타인에게 칭찬을 요구하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비판과 비난을 하기 위해 타인의 시선과 주변 환경에 더욱 신경을 쓰고 주위를 살피는 방식으로 자기고양 효과를 얻지 못한다. 실제로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에 비해서 낮은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세란, 2004). 이에 비해 불안수준과 우울, 분노경험, 강박증상, 완벽주의, 주관적 불편감, 부정적 자기개념은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이 더 높게 보고되고 있다(한수정 1999).

‘응대성-과시성’ 이 높은 경우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로 구분된다. 자신감이 넘치고 타인들로부터 특별대우를 요구하며 그들을 무시하듯 행동하고 강한 자기 과시를 보인다. ‘취약성-민감성’ 은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의 특성으로 구분되며,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고 방어적이며 감정을 억제하는 행동을 보인다. 자기애의 두 가지 성향 모두 응대한 자기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비교 분석해보면 나타나는 양상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류수정, 2014).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DSM-5에 제시된 자기애성 성격장애 진단기준에 적합하다.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며, 거만한 태도를 보이며, 과도한 찬사를 요구하고, 특권의식을 갖고 있으며, 착취적인 대인관계 패턴을 가진다. 이들의 행동 양식은 제 3자의 관찰에서도 자기애적 특성이 잘 드러난다.

반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타인의 관심을 불편해하며, 수줍음을 잘 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 받고, 수치심을 느낀다. 또한 소심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매우 의식하며, 타인 앞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런 자기애 성향자들을 단지 ‘수줍음이 많고 예민한 사람’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는 겉모습에 의한 판단일 뿐이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나는 ‘못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거절 당해서도 안 되며, 밋게 보여서는 안 되며,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자신이 무언가를 못하거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권석만, 한수정, 2000).

Akhtar와 Thompson(1982)은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의 특성을 자기개념, 대인관계, 사회적 적응, 윤리와 이상, 사랑과 성, 인지양식의 6개 범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표 II-2 참조).

<표 II-2> Akhtar와 Thompson의 자기에 하위유형 구분

	외현적 자기에	내현적 자기에
자기개념	웅대성, 고양된 자기존중, 영민함에 대한 환상들, 자신이 독특하다는 과장된 감각, 특권의식, 자신이 취약하지 않다는 착각	열등감, 자기의심, 수줍음, 취약함, 비판과 현실적 좌절에 대한 민감성, 힘과 명예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
대인관계	피상적인 인간관계, 타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는 강렬한 욕구, 타인에 대한 멸시와 평가절하하는 경향, 공감의 부족, 집단활동에 진심으로 하지 않음, 종종 '화려한 고립'으로 철수	타인에 대한 만성적인 이상화와 강한 시기심, 칭찬에 대한 강한 갈망
사회적 적응	사회적 성공, 과시 욕구를 위한 거짓 승화, 강한 야심	목표 없음, 만성적인 지루함, 불확실성, 직업적·사회적인 정체성에 대한 불만족, 다양하지만 피상적인 흥미
윤리와 이상	돈에 대한 거짓된 경멸, 독특하고 균형이 맞지 않는 도덕성, 겉으로는 도덕적·사회정치적·심미적문제에 대한 열성을 보임	진실된 관여가 부족, 거짓말, 호의를 얻기 위해 쉽게 가치를 바꿈, 타락하기 쉬움, 권위에 대한 불경
사랑과 성	결혼 불안정, 유혹적, 문란한 성생활, 성적 억제부족, 자주 사랑에 빠짐	사랑을 지속시키지 못함, 사랑의대상분리별개의 개인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의 연장으로 취급, 성도착적인 환상이나 성적 일탈을 보임
인지양식	현실을 자기중심적으로 지각, 명확하고 웅변적인 말투, 자기중심적인 현실지각, 논쟁에서 회피적이지만 논리적으로 일관된 주장	사건의 객관적인 측면에 주의를 덜 기울임, 기억에 공백이 있기도함, 과도하게 추상적이었다가 구체적이기를 반복, 자존감이 위협 당했을 때 현실의 의미를 변경하는 경향성

이처럼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남운(2001)은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타인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긍정적인 평가를 이미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스스로 부정적인 평가를 예상하고 그러한 상황을 늘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가 취약한 자기개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방어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적응 및 병리도 다르게 나타난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는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에 비해 더 높은 주관적 불편감과 더 낮은 삶의 만족도를 경험한다(Rose,2002). 또한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는 더 우울하고 적대적이며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더 많이 보이고 있으며, 분노감정을 많이 경험하지만 그 분노를 억제하기 때문에 분노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보았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억압된 분노감정은 폭발하면 매우 공격적이고 극단적이 될 수 있다. 특히 대인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가 외현적 자기애보다 부적응적 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있기에 내현적 자기애 성향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박세란 2004, 김소연, 2015, Wink, 1991)

2.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

자기애 성향이 강할수록 분노를 표현하는 경향이 높으며(강일선·오경자, 2006; McCann & Biaggio, 1989), 자기애는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분노표현양식을 보이는데,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는 분노유발 상황에서 분노표출기제를 주로 사용하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는 분노억압기제를 더 많이 사용함으로써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이 높다(강문선·이영순, 2011; 강예모·김정규, 2012; 백승혜·현명호, 2005, 2008). 이는 좌절상황 실험연구를 통해서도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이 좌절을 경험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분노를 표출한 반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이준득, 2005). 이처럼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분노수준이 높은 좌절 경험 상황에서 오히려 분노를 억제하는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들이 많이 제시되었다.

Kernberg는 자기애를 지닌 사람이 나타내는 자기애를 ‘자기애적 분노’라고 말하였으며, 이러한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한 웅대한 자신감으로 인하여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분노와 보복행동을 보인다(송혜란, 2013)고 하였다. 특히,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는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보다 우울, 낮은 자존감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과 더 관련이 있어(Hendin & Cheek, 1997), 다른 누구보다 높은 분

노를 갖고 있으며, 타인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숨기고 있다(서수균, 권석만, 2002).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는 평소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보다는 방어적으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지만(정남운, 2001), 그동안 억압되었던 분노가 폭발하면 분노를 통제 못하고 보다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낸다(백승혜, 2004).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내현적 자기애와 공격성의 관계를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격성은 관계적 공격성으로 구분되어 연구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내현적 자기애는 관계적 공격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갖는 청소년들이 겉으로 조용하지만 숨겨진 분노를 통해 공격성을 표출할 수 있고, 이러한 공격성은 반응적이고 관계적인 공격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송혜란, 2013).

C. 거부민감성

1. 거부민감성의 개념 및 특징

친밀한 유대관계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며, 수용을 얻고 거부를 피하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핵심 동기인 만큼(Maslow, 1987; Rogers, 1959; Sullivan, 1937), 사람들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중요한 타인(significant other)을 통해 수용되는 경험을 하면서 스스로를 가치 있고 필요한 존재로 받아들여지게 된다(Erskine, Moursund, & Trautmann, 2013). 그러나 비슷한 거부 경험 상황에서 사람들이 거부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며 반응하는 정도와 형태가 다른데, 거부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이 바로 ‘거부민감성’(rejection sensitivity)이다. 거부민감성(rejection sensitivity)은 개인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가까운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성격적인 성향으로(Downey, Berenson, Ayduk, & Kang, 2010) 다양한 대인관계 상황에서 자신의 요구가 타인에게 거부당할 것이라는 불안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거부적 단서를 항상 민감하게 지각하고 거부당하는 것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는 역동적인 인지적 정서 상태를 말한다(Feldman & Downey, 1994). 다시 말해,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정서적으로 거부를 당할까봐 거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기불안, 예기분노, 그리고 예기우울을 느끼게 되는 하나의 경향성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낯선 타인과의 대인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불안과는 구별된다(이복동, 2000). 이처럼

럽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상대방의 모호한 행동에도 고의적인 거부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을 반영하고 있다(Feldman & Downey, 1994). 거부민감성(rejection sensitivity)이란 현실화 되지 않은 애매한 상황에서 자신의 요구가 거부당할 것이라는 불안한 기대를 하며, 거부에 대한 요인을 과민하게 지각하고 반응하는 인지·정서적 과정(Feldman & Downey, 1994)이다. 초기 애착형성 과정에서 주요 대상으로부터 지속적인 거부를 경험한 아동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고, 이후 대인 관계에서도 자신이 거부당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게 되며, 결론적으로 애착이 거부민감성을 발달시키는 원인이 된다(McLachlan, 2010). 또한 거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 대인관계에서 더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Downey, Feldman & Ayduk, 2000). 상대방의 행동을 거부로 부호화하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되고 분노와 외현적 공격행동과 같은 부적응적인 정서와 행동으로 표현되어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하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Levy, Ayduk & Downey, 2001).

거부민감성은 일반적인 대인관계보다 친밀한 관계에서 더욱 활성화 된다(Downey & Feldman, 1996). Bowlby(1980)는 애착이론에서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정서적 거부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에게 의미있는 타인의 수용과 지지가 필요한 순간에서도 거부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된다고 한다. Feldman과 Downey(1994)는 Bowlby의 애착이론 중 초기거절경험을 바탕으로 내적작동모형을 인지·정서적 처리과정과 연결시켰고, 거부민감성이라고 개념화했다. 이는 주 양육자가 아동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향이 클수록 거절에 민감해질 것이라고 여기는 불안정한 내적작동모형의 발달과정이라고 보았다. 아동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수용되고 지지받아야 할 때 아마도 거절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며 거절로부터 피하는 것을 특별히 중요한 가치로 습득하게 된다(Downey & Feldman, 1996). 즉 중요한 타인에게 요구를 하거나 약점을 드러낼 경우 예기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데, 예기 불안은 거절의 단서를 과잉 각성하게 만든다. 그래서 약간이거나 모호한 거부상황에서도 쉽게 거부에 대한 감정을 느끼고, 적대적 의도가 있는 거부로 인식한다. 거부에 대한 인식은 분노나 적대감, 지지의 철회, 질투, 의기소침 등의 부정적 정서를 일으키고 상대의 행동을 부적절하게 통제하려는 행동을 일으키게 된다(Downey, Lebolt, Rincon, & Freitas, 1998; Downey & Feldman, 1996)

개인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거부에 대한 예측을 학습하게 되고, 이렇게 습득된 거부예측(rejection expectancies)으로 인해 고통받을 수 있다. 결국, 높은 거부민감성을 가

진 사람은 거부와 관련된 신호나 거부당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경계심이 고조되고 강렬한 정서반응을 드러내게 된다(Levy, Ayduk, &Downey, 2001). 예를 들면, 거부민 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친구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나 데이트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요구에 대한 확신이 없고, 거부당할 것이라는 거부예측과 거부불안이 상승하는 것을 경험한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통해 이들이 거부와 관련된 신호에 대해 특정적으로 반응한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예를 들면,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단절되거나 외로운 사람들을 묘사한 그림을 보았을 때 또는 ‘버려지다’, ‘배반하다’와 같은 거부 관련 단어들에 노출되었을 때, 부정적 사고와 함께 부정적 감정을 더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눈 깜빡임 횟수의 증가와 피부전도도가 상승하는 등 신체적 반응들이 활성화 되었다(Downey, London, & Shoda, 2004).

도식이론(Schema Theory)의 관점에서 도식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서로 다른 지식구조를 연결하고 조직화하여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해석한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관계적 상황에서도 거부도식(rejection schema)이 자동적으로 연결됨을 경험한다. 이들은 지각된 정보를 거부도식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거부신호에 대해 민감하고 거부예측이 활성화되어 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타인,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각자의 도식을 갖으며, 자신의 성격적 특성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선택하고 사건을 처리하고 수습하며, 재구성하는 경향성이 있다. .

2. 내현적 자기애과 거부민감성의 관계

애착이론(Bolwby, 1980)에 따르면, 내현적 자기애와 거부민감성은 모두 부모와 형성된 불안정애착에 따른 것으로 심리적 표상의 손상으로 자기 및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상을 형성하게 된다.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은 위축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 불안 수준이 높고, 특히 부모로부터 받은 비밀관적인 양육경험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거부에 대한 불안이 높은 편이다(Hendin et al., 1997). 타인의 반응이나 비판에 매우 취약하고 민감하여(강선희·정남운, 2002) 대인관계에서 타인에게 수용되기를 바라나 타인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거부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예민한 특성을 보인다(김진선, 2009; 이준득, 2005)

이처럼 내현적 자기애는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상 형성으로 인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타인도 역시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라는 왜곡된 인식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부될 것이라는 방어적 기대를 발달시키게 되고, 거부단서나 징후에도 과경계하여 모호한 거부 단서에도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임에 따라 거부를 피하는데 가치를 두게 된다(김진선, 2009; 박우람, 홍상황, 2015).

또한 거부민감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우울(류혜라, 박기환, 2011; 박민숙, 2014), 공격성(강은영, 이희경, 2014; 홍상황, 이경연, 2013), 또래관계 문제 및 또래 괴롭힘(박혜정, 홍상황, 2014), 대인관계 및 대인불안(김향선, 이영순, 2011) 등의 심리정서적 문제가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내현적 자기애와 거부민감성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관련성을 보이는데, 거부민감성이 높은 경우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을 보인다(홍상황 · 이은주, 2014).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 중 ‘과민성과 취약성’은 원 척도 강선희 · 정남운(2002)의 내현적 자기애 척도(CNS, Covert Narcissism Scale)의 하위요인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수정 명명한 것이다. 이것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내현적 자기애의 주요 특성 중 하나인 만큼 내현적 자기애는 거부민감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해준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와 거부민감성은 모두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인 내적작동모델에서 기인한 심리적 요인들로 내현적 자기애는 거부민감성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박우람 · 홍상황, 2015). 또한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거부민감성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 내현적 자기애와 거부민감성 간의 유의한 정적 관계를 밝혔다(김미선, 2014; 김정남, 2015; 이경주 · 황순택, 2013). 한편, 자기애와 관련된 유사변인으로 자존감과 거부민감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자존감이 낮을수록 거부민감성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유애형, 2014).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신에 대해 형성된 부정적인 자기개념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거부를 예상하게 됨에 따라 거부불안이나 거부분노, 거부우울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사한 자기개념 중 하나인 자기가치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자기가치감이 낮을수록 거부민감성 역시 높게 나타남에 따라(Ayduk et al., 2009)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인해 형성된 부적절한 자기개념은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내적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관계만족도를 스스로 낮게 평가할 뿐 아니라 관계의 질을 손상시키는 행동도 보인다. 남성의 경우, 상대방에게 질투를 많이 하는 모습이 나타나며, 여성의 경우 상대방에게 적대감을 보이며 정서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관계만족도를 손상시켜 떠나고 싶게 만들고, 이로 인해 거부 민감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는데 이를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한다(Downey & Feldman, 1996).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에와 거부민감성은 모두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인 내적작동모델에서 기인한 심리적 요인들로 내현적 자기에와 거부민감성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박우람, 홍상황, 2015). 내현적 자기에가 높을수록 거부민감성 또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내현적 자기에와 거부민감성 간의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김미선, 2014; 김정남, 2015).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에게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 자기 침묵, 보상 행동과 같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많은 선행 연구 결과 살펴보면 거부민감성이 높은 이들은 상대방의 거부에 대해 더욱 민감하며 공격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Ayduk et al, 2008).

3. 거부민감성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거부를 지각할 때, 거부에 대한 불안과 분노를 느끼게 된다(전아영, 2018). Ayduk 등(1999)은 거부에 민감한 경우에 부정적 관계대처전략들은 공격적인 보복 전략과 사회적 철회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한다.

Zimmer-Gemveck (2016)는 대처전략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표출되는 이유로 거절에 대한 귀인성향의 차이를 언급하였다. 타인으로부터 거부되었다는 지각을 통해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자책하게 되고, 심리적 억제와 사회적 철회의 반응을 보이게 된다. 반대로,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한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하면 타인에게 탓을 돌리거나, 자신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려는 의도로 공격적인 행동을 표출하기도 한다(Ayduk, Gyurak, Luerssen, 2008).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타인의 의도나 동기에 대해 평가하는 책임귀인을 많이 하며(정이랑, 2013) 부정적인 상황에서 적대적 귀인 경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홍상황, 이경연, 2013). 이로 인해 발생된 적대감이나 분노감정은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을 선행연구로 확인할 수 있다(박우람, 홍상황(2015)).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거부가 지각되는 상황에서 예기 분노를 경험하게 되며, 상대방에게 적대감, 분노 등을 언어와 비언어를 사용하여 공격하는 격렬한 반응으로 표출하는 것이다(London, Downey, Bonica & Paltin, 2007). 특히 친밀하고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거부를

지각할 때, 혹은 거부를 실제로 경험했을 때 더욱 적대적이고 공격적일 수 있다(김선미, 2014).

많은 선행 연구에서도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김현진, 2017; 이승연, 김세진, 2017). 타인에게 거부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을 수 있고(홍상황, 2012), 타인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회피적이거나 은밀하고 교묘한 형태로 공격성을 표출할 수 있다는(Downey et al, 2000) 연구결과로 지지될 수 있다. Crick과 Dodge(1994)는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과 관계적 공격성의 연관성에 대해 사회정보처리이론으로 설명한다. 공격적인 청소년은 사회정보처리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적절한 평가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을 한다는 특징이 있고, 사회적 단서를 해석하는 능력에서 결함을 갖고 있으며, 잘못 추론하고 특정 해석에 치우쳐진 일탈적인 인지적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곽금주, 1993).

Fauber(1990)는 효율적인 부모역할의 방법으로 훈육방법의 일관성을 강조하였다. 거친 훈육은 자녀의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일으키게 한다. 신체적인 처벌과 같은 거친 훈육은 신체적인 공격이 불일치를 해결하는 합법적인 전략으로 학습받게 된다고 하였다(최윤정, 2004 재인용). Rey와 Plapp(1990)은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과잉보호하는 부모들의 자녀는 공격성이나 비행 등의 외현화 문제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거부적이거나 적대적이고 처벌적이고 수치심을 조장하고 과도한 통제를 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행동문제와 비행, 공격성에 결정적인 위험요인으로 밝혀졌고,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참여나 태도 및 감독은 자녀의 비행과 행동장애를 줄이는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Wassweman et al., 1996).

D. 내현적 자기에와 거부민감성 및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

내현적 자기에에는 타인의 반응이나 비판에 매우 취약하고 민감하여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으며(강선희, 정남운, 2002), 자존감이 낮고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함에 따라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다(이준득, 2005).

위축된 자아로 인해 자아상이 손상될 만한 상황은 되도록 회피하고자 하며, 타인의 반응에 예민함을 보인다(한수정 · 권석만, 2010; Hendin & Check, 1997). 이들은 대인관계에서도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할 것에 두려워하여 거부단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

고 경계함으로써(김진선, 2009), 모호한 상황에서 예민하고 과잉되게 반응하고, 거부단서로 지각하여 위협적으로 느끼고 과도하게 경계를 하는 반응을 보인다(김진선, 2009; 박우람·홍상환, 2015; Downey & Feldman, 1996).

이처럼 거부민감성은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인 내적심리기제로 작용함에 따라 거부민감성이 높은 경우 자아상에 위협이 가해지거나 손상될 만한 상황에서는 회피나 억제와 같은 방어기제를 사용함에 따라 자기애가 가진 분노 수준은 높지만 오히려 분노를 억제시키는 경향을 보인다(이지연, 2008).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역할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드물어 유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와 매우 유사한 자기개념인 자아존중감과 또래압력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이 유의한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유애형, 2014). 이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일수록 타인의 비판을 두려워하고, 위축된 모습을 보이며, 친구들로부터 거부당할 것에 대한 거부불안이나 거부분노 등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거부민감성의 특성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또래와의 관계를 계속 보존하고자 하며, 타인에게 더 의존적인 모습을 보임에 따라 또래압력에서 보다 취약한 점들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또래압력은 대개 전위 공격성이 유발되는 또래 괴롭힘이나 학교폭력 상황에서 주로 나타나는 집단 동조성향인만큼 내현적 자기애와 공격성의 관계에서도 거부민감성이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임혜은, 2015).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가 거부민감성을 통해 억제된 분노표현양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선, 2014). 이러한 연구결과는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거부 대한 민감성이 크게 작용함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부당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분노감정을 억제하는 기제를 사용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에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 및 타인에 대한 내적심리 요인인 거부민감성의 매개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거부민감성을 매개하여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A. 연구대상

본 연구는 G광역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92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무응답과 불성실한 응답 36부를 제외한 356부를 연구자료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대상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Ⅲ-1> 과 같다.

성별은 남성 131명(36.8%), 여성 225명(63.2%)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 310명(87.1%), 2학년 28명(7.9%), 3학년 12명(3.7%), 4학년 5명(1.4%)이다. 형제 수는 외동 29명(8.11%), 2명 215명(60.4%), 3명 92명(25.8%), 4명 이상 20명(5.6%)이고, 출생순위로는 둘째가 146명(41.1%)으로 가장 많으며, 첫째 126명(35.5%), 셋째 46명(13.0%), 외동 33명(9.3%)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 인구 통계학적 특성 (N=356)

요인	구분	빈도(N)	비율(%)
성별	남	131	36.8
	여	225	63.2
학년	1학년	310	87.1
	2학년	28	7.9
	3학년	13	3.7
	4학년	5	1.4
형제 수	외동	29	8.11
	2명	215	60.4
	3명	92	25.8
	4명 이상	20	5.6
출생순위	외동	33	9.3
	첫째	126	35.5
	둘째	146	41.1
	셋째	46	13.0
	넷째 이상	5	1.1

* 결측치는 제외함

B. 측정도구

1. 관계적 공격성 척도(PCS)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Marsee, Kimonis & Frick(2004)이 개발하고, 한영경(2008)이 번안, 조지영(2011)이 최종 수정한 자기보고형 또래갈등 척도(Peer Conflict Scale, PC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현적 공격성(반응적 외현적, 주도적 외현적) 20문항과 관계적 공격성(반응적 관계적, 주도적 관계적) 20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확실히 그렇다(4점)’으로 평정하되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공격성이 강함을 나타낸다.

Crick과 Grotpeter(1995)에 따르면 공격성은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은 서로 다른 공격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통계분석에서는 외현적 공격성에 관한 문항을 제외하고, 연구 목적과 주제에 맞는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문항만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또래갈등 척도에서 관계적 공격성 문항만을 사용한 선행연구는 노우빈(2015), 임정우, 홍혜영(2015), 김정균, 장석진(2014) 등이 있다.

조지영(2011)의 선행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은 .85,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은 .86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94이었다.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과 내적 신뢰도 계수는 표 III-2과 같다.

<표 III-2> 관계적 공격성 척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변인	하위요인	문항번호-4점 척도	문항수	Cronbach's α
관계적 공격성	주도적 관계적	2, 6, 9, 13, 19, 23, 26, 29, 32, 39	10	.87
	반응적 관계적	4, 7, 10, 15, 17, 22, 31, 24, 28, 40	10	.89
	전체		20	.94

2. 내현적 자기에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를 측정하기 위해 Akhtar과 Thomson(1982)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참고하여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비임상집단을 646명을 대상으로 개발 및 타당화 한 내현적 자기에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를 사용하였다. 총 45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Likert 5점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의 공통요인 2개는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9문항), 착취/자기중심성(9문항)으로 명명하였으며, 내현적 자기에 고유요인 3개는 목표불안정(9문항), 과민/자기취약성(10문항), 소심/자신감부족(8문항)으로 명명하였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91이었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한 김진희(2011)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외현적 자기에와 대비되는 내현적 자기에의 고유한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므로, 내현적 자기에 하위척도 중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의 공통요인(CNS23)을 제외한 내현적 자기에 고유요인(CNS145)인 목표불안정, 과민/자기취약성, 소심/자신감부족 요인만을 사용하였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보고한 내현적 자기에 고유요인의 문항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89, .80, .77이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전체 신뢰도 계수는 .95이었다.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과 내적 신뢰도 계수는 표 III-3와 같다.

<표 III-3>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변인	하위요인	문항번호-5점 척도	문항수	Cronbach's α
내현적 자기애	목표불안정	5, 15, (20), 23, 29, 30, (37), 42, 44	9	.87
	과민/자기취약성	3, 8, 10, 14, 19, 25, 26, 31, 36, 40	10	.88
	소심/자신감부족	231, 18, 21, 28, 32, (34), 39, 41	8	.82
	전체		45	.95

* () 역채점 문항.

3. 한국 대학생 거부민감성 척도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박명진(2016)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한국 대학생 거부민감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하위요인은 예기분노, 예기불안, 과잉반응, 거부지각이다. 한국 대학생 거부민감성 척도는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Likert 5점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요인별 거부민감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박명진(2016)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고, 4개의 하위요인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각각 .89, .75, .84, .74 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전체 신뢰도 계수는 .95이었다.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과 내적 신뢰도 계수는 표 III-4과 같다.

<표 III-4> 한국 대학생 거부민감성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변인	하위요인	문항번호-5점 척도	문항수	Cronbach’s α
	예기분노	1, 2, 3, 4, 5	5	.91
	예기불안	6, 7, 8, 9	4	.85
거부민감성	과잉반응	10, 11, 12, 13	4	.87
	거부지각	14, 15, 16	3	.85
	전체		16	.95

C.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SPSS 23.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에 사용한 척도들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각 척도별로 타당성 분석과 내적신뢰도(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자료의 경향성을 파악하고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시키는 변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과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파악하였다.

넷째, 분석에 앞서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여 정규성을 나타내지 않는 변인은 로그변환(Log Transform) 하였다.

다섯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통해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여섯째, 본 연구의 측정 변수들이 잠재 변인을 잘 구인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적합도 및 요인부하량을 확인하였다.

일곱째, 본 연구의 연구 모형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모형에 관한 적합도 검증을 하였다.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χ^2 값, CFI, TLI, RMSEA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strapping)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A. 기초통계분석

1.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

본 분석에 앞서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공차한계가 0.1 이하이거나 VIF 계수가 4-5 이상으로 나타나면 다중공선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또한, Durbin-Watson 지수는 2에 가까울수록 독립적이고, 0이나 4에 가까울수록 자기상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모든 독립변인에서 공차한계는 .51-1.00, VIF 계수 1.00-1.94, Durbin-Watson 지수가 1.71로 나타났다. 이같이 독립성 가정이 충족되므로 이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내현적 자기애, 거부민감성 및 관계적 공격성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변인들의 기술통계 자료의 왜도와 첨도를 통해 정규성을 검토하였다. 왜도와 첨도의 유의성은 일반적으로 왜도와 첨도의 값 자체로 판단하게 되는데, West, Finch, Curran(1995)에 따르면 왜도가 2를 초과하거나, 첨도가 7을 초과하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Kline(2005)는 왜도의 절대값이 3.0보다 크거나, 첨도의 절대값이 10.0보다 크다면 분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제안하였다(DeCarlo, 1997).

본 연구에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변인들 대부분의 왜도와 첨도가 2 또는 7을 초과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계적 공격성의 주도적 관계적(왜도 3.08, 첨도 10.05),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왜도 2.81, 첨도 8.66)과 반응적 관계 공격성(왜도 3.04, 첨도 9.66)의 왜도와 첨도가 정규분포를 다소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왜도와 첨도의 기준치를 충족하지 않은 관계적 공격성의 주도적 관계적과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에 로그를 취하여 정규성을 나타내도록 변인을 변환하여 사용하였다(문수백, 2009; 이성용, 이정환, 황명진, 2007). 로그변환 후 관계적 공격성의 왜도는 2.32, 첨도는 5.63, 주도적 관계적의 왜도는 .84, 첨도는 .03, 반응적 관계적의 왜도는 2.05, 첨도는 4.31로 나타났다. 이는 Kline(2005)의 기준(왜도>3.0, 첨도>10.0)에 따라 정규성 분포를 충족한다고 판단할 수 있어 로그변환한 값을 이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결과는 다음 <표 IV-1>과 같다.

<표 IV-1> 주요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연구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내현적 자기에	1. 목표불안정	2.75	.75	.11	.12
	2. 인정/거대자기환상	2.87	.75	-.42	.27
	3. 착취/자기중심성	2.17	.67	.07	-.40
	4. 과민/자기취약성	2.61	.77	-.24	-.19
	5. 소심/자신감부족	2.90	.74	-.01	-.37
	6. 내현적 자기에 전체	2.66	.60	-.36	.24
거부민감성	7. 예기분노	2.43	.96	.08	-.82
	8. 예기불안	2.34	.92	.21	-.59
	9. 과잉반응	2.48	.97	.07	-.76
	10. 거부지각	2.35	.97	.11	-.84
	11. 거부민감성 전체	2.40	.83	-.12	-.83
관계적 공격성	12. 주도적 관계 공격성	1.24	.36	3.08	10.05
	13. 반응적 관계 공격성	1.23	.36	2.81	8.66
	14. 관계적 공격성 전체	1.24	.36	3.04	9.66

* $p < .05$, ** $p < .01$

2. 주요 변인의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에, 관계적 공격성, 거부민감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내현적 자기에와 거부민감성($r = .41$, $p < .01$) 및 관계적 공격성($r = .13$, $p < .05$)은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며, 거부민감성과 관계적 공격성($r = .33$, $p < .05$)도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각 하위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변인은 서로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며, 관계적 공격성의 하위 변인인 주도적 관계적 변인과 내현적 자기에의 목표불안정과 인정/거대자기환상, 소심/자신감 부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는 다음 <표 IV-2>과 같다.

<표 IV-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

연구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목표불안정	1														
내현적 자기애	2. 인정/거대자기환상	.38**	1												
3. 착취/자기중심성	.45**	.62**	1												
4. 과민/자기취약성	.58**	.75**	.65**	1											
5. 소심/자신감부족	.54**	.59**	.44**	.76**	1										
6. 내현적 자기애 전체	.72**	.82**	.77**	.92**	.82**	1									
거부 민감성	7. 예기분노	.33**	.59**	.54**	.57**	.46**	.60**	1							
8. 예기불안	.30**	.51**	.45**	.59**	.54**	.59**	.64**	.64**	1						
9. 과잉반응	.41**	.53**	.51**	.62**	.58**	.64**	.69**	.71**	.71**	1					
10. 거부지각	.34**	.50**	.47**	.57**	.50**	.58**	.66**	.60**	.73**	.73**	1				
11. 거부민감성 전체	.41**	.61**	.57**	.67**	.60**	.70**	.86**	.85**	.90**	.86**	.86**	1			
관계적 공격성	12. 주도적 관계 공격성	.06	.08	.35**	.20**	.07	.18**	.28**	.26**	.18**	.19**	.27**	.27**	1	
13. 반응적 관계 공격성	.13*	.20**	.42**	.24**	.12*	.27**	.37**	.30**	.26**	.29**	.35**	.78**	.78**	1	
14. 관계적 공격성 전체	.13*	.19**	.42**	.24**	.10*	.26**	.34**	.30**	.24**	.26**	.33**	.88**	.97**	.97**	1

* $p < .05$, ** $p < .01$

B.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1. 측정모형 검증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Anderson과 Gerbing(1988)의 제안에 따라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성격을 가진 측정모형을 검토하고, 이후에 잠재변수 간 이론적 관계를 검증하는 구조모형을 검토하는 2단계 방식을 사용하였다.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각 하위요인을 측정변인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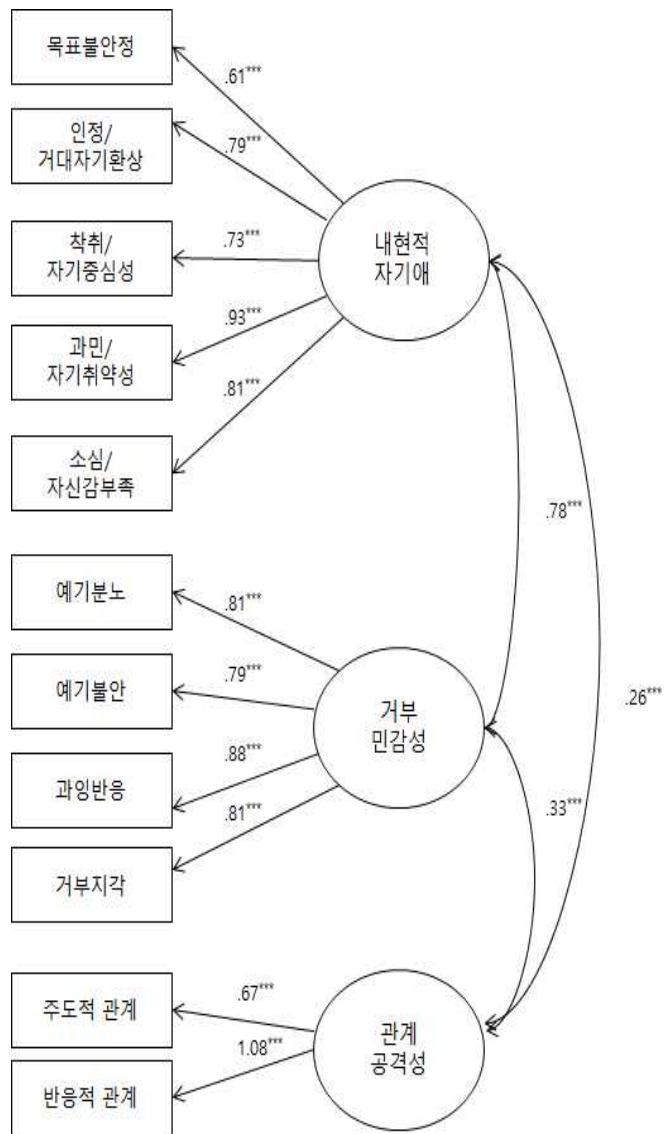
먼저 구조방정식 2단계 분석의 첫 번째 단계로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구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TLI가 .95, CFI는 .94로 좋은 적합도를 보이고, RMSEA도 .09로 보통 적합도를 나타냈다.

<표 IV-3> 측정모형의 적합도

모형	χ^2	df	TLI	CFI	RMSEA
측정모형	189.09***	50	.95	.94	.09

*** $p < .001$

또한,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을 <표 IV-4>에 제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중 측정모형에서는 여러 개의 관찰 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종필(2012)은 측정모형에서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이 최소 .5 이상이어야 하며, .95 이하면 좋다고 하였다. 분석결과 측정변인들은 모두 양호하여 이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2] 측정모형

<표 IV-4>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잠재변인	측정변인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화 추정치	SE	C.R.
	목표불안정	.77	.91	.06	12.43***
	인정/거대자기환상	1.00	.79		
내현적 자기애	착취/자기중심성	.83	.73	.05	15.03***
	과민/자기취약성	1.20	.93	.06	20.81***
	소심/자신감 부족	1.01	.81	.06	17.43***
	예기분노	1.06	.81	.06	17.02***
	예기불안	1.00	.79		
거부 민감성	과잉반응	1.18	.88	.06	18.94***
	거부지각	1.08	.81	.06	17.15***
	주도적 관계 공격성	1.96	.73	.28	5.91***
관계적 공격성	반응적 관계 공격성	1.00	.99		

* $p < .05$, ** $p < .01$

2. 구조모형 검증

먼저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여 <표 IV-5>에 제시하였다. 측정모형과 동일한 값으로 보통의 적합도를 보이고 있었다. 연구모형의 각 변인 간 경로계수를 <표 IV-6>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표 IV-5> 연구모형의 적합도

모형	χ^2	df	TLI	CFI	RMSEA
연구모형	170.27***	40	.93	.95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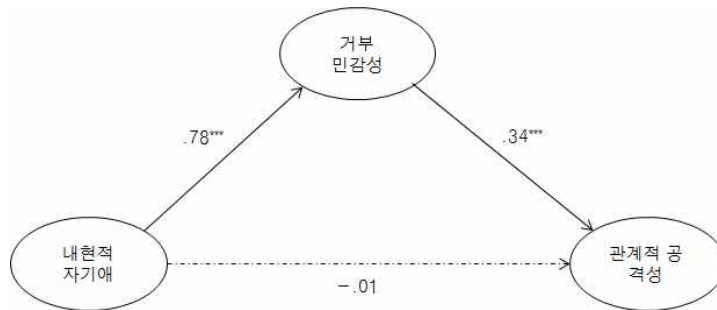
*** $p < .001$

<표 IV-6>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화 추정치	SE	C. R.
내현적 자기애 → 관계적 공격성	-.00	-.01	.06	-.07
내현적 자기애 → 거부민감성	1.01	.78	.07	13.88***
거부민감성 → 관계적 공격성	.17	.34	.06	3.14**

** $p < .01$, *** $p < .001$

첫째, 내현적 자기애는 관계적 공격성($\beta = -.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1-1이 지지되었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는 거부민감성($\beta = .78$, $p < .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2가 지지되었다. 셋째, 거부민감성은 관계적 공격성($\beta = .34$, $p < .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3이 지지되었다. 즉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거부민감성이 높아지고,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그림 3] 연구모형 2

3.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표 IV-7>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내현적 자기애가 거부민감성을 통해서 관계적 공격성에 이르는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추정값=.26, 95%(.14, .39)).

<표 IV-7> 매개효과 검증(Bootstrapping)

경로	표준화 추정치	SE	95% 신뢰구간	
내현적 자기애 → 거부민감성 → 관계적 공격성	.26**	.07	.14	.39

** $p < .01$

거부민감성은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2-1이 지지되었다.

V. 논의 및 제언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거부민감성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내현적 자기애가 거부민감성을 매개하여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PSS 23.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내현적 자기애, 관계적 공격성, 거부민감성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후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에 대해 분석하였고, 각 변인들의 하위요인에 대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가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봄으로써 실제 상담 장면에서 내현적 자기애로 인해 관계적 공격성을 나타내는 내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대학생 3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내현적 자기애, 관계적 공격성, 거부민감성 사이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와 거부민감성 및 관계적 공격성은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며 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김미선, 2014, 송혜란, 2013, 최두환, 2013),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거부민감성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김정남, 2015, 김미선, 2014, 이경주, 황순택, 2013)와 일치한다.

둘째,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내현적 자기애가 관계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은 자기개념 명료성이 낮기 때문에 쉽게 분노를 경험하며, 더 우울하고 공격적이며(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타인에 대한 공격성과 적대감이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를 지지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가 관계적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연구결과(김주영, 2012)와 동일한 결과이다.

셋째,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거부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내현적 자기애는 거부민감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는 타인의 반응이나 비판에 매우 취약하고 민감하여(강선희·정남운, 2002) 대인관계에서 타인에게 수용되기를 바라나 타인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거부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예민한 특성을 보인다는(김진선, 2009; 이준득, 2005) 선행연구를 지지한다. 이처럼 내현적 자기애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인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타인 역시도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라는 왜곡된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부될 것이라는 방어적 기대를 발달시키게 되고, 거부단서나 징후에도 과경계하여 모호한 거부 단서에도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임에 따라 거부를 피하는데 가치를 두게 된다는 선행연구(김진선, 2009; 박우람, 홍상황, 2015)와 일치한다.

넷째,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거부민감성이 관계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타인의 의도나 동기에 대해 평가하는 책임귀인을 많이 하며(정이랑, 2013) 부정적인 상황에서 적대적 귀인 경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홍상황, 이경연, 2013). 이로 인해 발생된 적대감이나 분노감정은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을 선행연구(박우람, 홍상황(2015)와 같은 맥락이다. 친밀하고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거부를 지각할 때, 혹은 거부를 실제로 경험했을 때 더욱 적대적이고 공격적일 있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김선미, 2014), 타인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회피적이거나 은밀하고 교묘한 형태로 공격성을 표출할 수 있다는(Downey et al, 2000)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다섯째,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매개변인인 거부민감성의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개인은 직접적으로 관계적 공격성을 드러내기보다는 거부민감성의 발달을 통해 관계적 공격성을 드러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와 유사한 자기개념인 자아존중감과 또래압력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이 유의한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유애형, 2014), 학령후기 아동의 내현적 자기애와 전위 공격성의 관계에서 수치심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임혜은, 201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내현적 자기애와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나, 대상에 따른 차이까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연령에 따라 공격성의 양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이와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성별과 연령에 따른 내현적 자기애와 거부민감성,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 및 영향력에 대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였으나,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 중 목표불안정과 인정/거대 자기환상, 소심/자신감 부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차이가 내현적 자기애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다른 결과를 나타나게 하는 원인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공격성 중에서 관계적 공격성만을 확인했으며, 따라서 관계적 공격성을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과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으로 세분화하여 유형과 기능을 함께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가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과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내현적 자기애와 주도적·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 있어 거부민감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강문선, 이영순 (2011).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내면화된 수치심과의 관계: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5), 1545-1560.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 강예모, 김정규(2012).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의식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2(3), 331-348.
- 강일선 · 오경자(2006). 자기에와 자기 개념의 명확성이 분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6(1), 606-607.
- 강영신, 주영 (2018). 대학생 따돌림 경험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19(1), 269-288.
- 곽금주 (2010). 흔들리는 20대 청년기 생애설계심리학. 서울: 서울대학교.
- 곽유미 (2015) 내·외현적 자기에와 우울의 관계- 자기제시 동기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중다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나경, 양난미 (2016).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사회불안의 관계: 거부민감성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7(2), 217-238.
- 김선미, 홍상황 (2014). 아동의 거부민감성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인식과 표현능력의 매개효과. **초등상담연구**, 13(4), 409-429.
- 김성주 (2015).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에와 사회불안의 관계-평가염려 완벽주의, 부정평가에 대한 두려움,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1), 199-216.
- 김소연(2015). 내면화된 수치심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검증: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예은 (2018).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거부민감성과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균, 장성진 (2014).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에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비합리적인 신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2), 791-810.
- 김현진, 김혜란 (2018).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6(3), 93-102.

- 노안영, 이민선 (2018).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연애관계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과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4), 1175-1192.
- 노우빈, 홍혜영 (2015).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과 사회불안의 매개효과 분석. **통합치료연구**, 7(2), 81-102.
- 류수정 (2014) 내현적 자기애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회비분산 정서조절양식의 매개효과.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박명진, 양난미 (2017). 대학생 거부민감성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1), 103-127.
- 박민정, 최보가 (2004).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4), 95-104.
- 박소연, 진미경 (2013). 아동의 부모애착과 외로움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6(4), 381-395.
- 박세란 (2005).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정서특성.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4(2), 255-266.
- 박우람 (2015).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한국초등교육**, 26(3), 237-257.
- 박우람, 홍상황 (2015). 아동의 거부민감성과 관계적 공격성간의 관계: 정서조절, 질투와 시샘의 순차적 매개효과. **초등상담연구**, 14(1), 1-23.
- 박우람, 홍상황 (2016). 아동의 거부민감성, 우울 및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 사회적지지와 자기조절의 조절효과. **초등상담연구**, 15(3), 233-256.
- 박우람, 홍상황(2014)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내현적 자기애와의 종단적 인과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11(3), 455-477.
- 배라영 (2017). 정서적 학대, 친구관계 문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 거부민감성, 사회불안, 분노반추의 매개효과.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라영 (2018). 정서적 학대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심리학회**, 32(1), 29-52.
- 배라영, 최지영 (2018). 한국판 관계적 공격성 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1), 55-79.
- 백승혜 · 현명호(2008).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적대감, 분노경험수준, 및 분노

- 표현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4), 1001-1017.
- 변은실, 이주영 (2016). 정서적 학대가 아동의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4), 1125-1149.
- 서수균 (2007). 자존감과 자기에 수준에 따른 분노사고 신념 분노표현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719-734.
- 성정아, 홍서영 (2014).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불안정 성인애착이 친밀감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자기노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387-412.
- 송혜란 (2014).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에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중재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민주 (2017).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에와 SNS 중독경향성간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및 또래애착의 조절효과. 경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주한, 유형근, 손현동 (2008). 초등학생의 공격성 유형에 따른 대인관계성향과 대인문제해결사고의 차이 분석. **열린교육연구**, 16(2), 67-90.
- 우종필 (2012). 구중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
- 윤완기 (1994). 부모의 체벌과 아동의 공격성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용, 이정환, 황명진(2007). 비선형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의 변환에 관한 연구. **통계연구**, 12(2). 229-251.
- 이은주 (2019).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데이트 폭력 가해 경향성간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내현적 외향적 자기에 성향자의 자기개념 명료성과 부정적 정서특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2), 463-477.
- 이지후 (2015). 사이코패스 성향과 공감능력 및 공격성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 흥, 김은정 (2012). 청소년의 공격성 하위유형에 따른 인지 및 정서 특성. **청소년학연구** 19(1), 227-250.
- 이희경, 김경희, 이홍권 (2014). 거부민감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긍정정서를 통한 파국적 사고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1), 97-121.
- 임정우, 홍혜영 (2016).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매개변인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4(1), 63-75.
- 임혜은 (2015). 학령후기 아동의 내현적 자기에가 전위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내면화

- 된 수치심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아영 (2018). 청소년의 거부민감성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분노반추의 매
 개효과와 마음챙김의 조절효과.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영태 (2017). 대학생의 사이버불링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개인의 심리적 요인을 중
 심으로. 한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다운, 김지웅, 홍현주 외(2015). 국내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직접적 공격
 성과 관계적 공격성의 차이. **정신신체의학**, 23(2), 86-92.
 정여주, 안선경 (2016).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3), 719-741.
 최두환 (2013).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공격성 간의 관계: 내면화된수치심과
 분노반추의 매개효과.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영경, 김은정(2011). 초기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 하위유형의 특성 탐색. **한국심리학
 회**, 30(4). 985-1002.
 한수정, 권석만(2010). 자기애자의 자기관련 정보에 대한 지각적 민감성. **한국심리학회
 지: 임상**, 29(4), 1135-1143.
 홍상황, 박혜정 (2013). 아동의 정서적 학대와 또래괴롭힘의 관계에서 거부불안 민감성
 의 매개효과. **한국초등교육**, 24(2), 59-74.
 홍상황 · 이경연(2013). 또래괴롭힘 피해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
 대적 귀인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4(2), 283-315.
 홍정미 (2006). 대학생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심리적 독립과의 관계. **아동복지연구**,
 4(4), 85-99.

<국외문헌>

- Akhtar, S., & Thom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Psychiatry*, 139(1), 12-2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rd ed.). Washington, DC: Author.
- Andreou, E., & Bonoti, F. (2010). Children's bullying experiences expressed through drawings and self-report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31(2), 164-177.
- Ayduk, ÖO., Gyurak, A., & Luerssen, A. (2008).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rejection - aggression link in the hot sauce paradigm: The case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4(3), 775-782.
- Anduk, O., Gyurak, A., & Luerssen, A. (2008).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rejection-aggression link in the hot sauce paradigm: The case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4, 775-782.
- Bagner, D. M., Storch, E. A., & Preston, A. S. (2007). Romantic.
- Bandura, A. (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theory analysis*. New York: Prentice-Hall.
- Barry, CT., Picard, J. D., & Ansel, L. L. (2009). The associations of adolescent invulnerability and narcissism with problem behaviors. *Personalty and Individual Difference*, 47, 577-582.
- Baumeister, R. F., Bushman, B. J., & Campbell, W. K. (2000). Self-esteem, narcissism, and aggression: Does violence result from low self-esteem or from threateneede egotis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9(1), 26-29.
- Berkowitz, L. (1965). The concept of aggressive drive: Some additional considerations.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pp. 301-329). New York: Academic Press
- Bogart, L. M., Benotsch, E. G., & Pavlovic, J. D. (2004). Feeling superior but threatened: The relation of narcissism to social comparison.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6(1), 35-44.
- Bowlby, J. (1969). *Attachment*, Vol. 1 of *Attachment and loss*.

- Buss, A. H., & Perry, M.(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3), 452-459.
- Cook, D. R. (1988). Measuring shame: The internalized shame scale.
- Caron, K. M. (2011). Reactive and aggression: Validation of a two-factor model in relational aggression using emotional functioning variables. Doctoral of dissertation.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 Crick, N. R. (1995). Relational aggression: The role of intent attributions, feelings of distress, and provocation typ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2), 313-322.
- Crick, N. R. (1997). Engagement in gender normative versus nonnormative forms of aggression: Links to social - psychological 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3(4), 610-617.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 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3), 710-722.
- Crick, N. R., Bigbee, M. A., & Howes, C. (1996). Gender differences
- Czar, K. A., Dahlen, E. R., Bullock, E. E., & Nicholson, B. C. (2011). Psychopathic personality traits in relational aggression among young adults. *Aggression Behavior*, 37, 207-214.
- Dahlen, E. R., Czar, K. A., Prather, E., & Dyess, C. (2013). Relational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54(2), 140-154.
- Dodge K. A. (1986). A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In M. Perlmutter(Ed.),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pp. 77-125). Hillsdale, New York: Erlbaum.
- Dollard, J., Miller, N. E., Doob, L. W., Mowrer, O. H., & Sears, R. R. (1939). *Frustration and aggression*. New He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Downey, G., Mougios, A., Ayduk, O., London, B. E., & Shoda, Y. (2004). Rejection Sensitivity and the Defensive Motivational System: Insights From the Startle Response to Rejection Cues. *Psychological Science*, 15(10), 668-673.
- Downey, G., & Feldman, S. I.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327-1343.

- Downey, G., Feldman, S., & Ayduk, O. (2000). Rejection
- Ellis, A., & Tafrate, C. (1997). How to control your anger before it controls you. New-York: Kensington Publishers.
- Erickson, E. (1963). *Childhood and society*. W. W. Norton: New York.
- Erickson, E. H. (1971). Autonomy v. shame and doubt. In H. Morris (Ed.), *Guilt and Shame* (pp. 155-158).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Freud, S. (1905). Three essays on the theory of sexuality. *Standare Edition*, 7, 125-243.
- Goldstein, S. E., Chesir-Teran, D., & McFaul, A. (2008). Profile and Correlates of Relational Aggression in Young Adults' Romantic Relationship.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 251-165.
- Gros, D. F., Gros, K. S., & Simms, L. J. (2010). Relations between anxiety symptoms and relational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in emerging adul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4, 134-143.
- Hendin, H. M., & Cheek, J. M. (1997). Assessing hypersensitive narcissism: A reexamination of Murray's Narcism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4), 588-599.
- Hibbard, S. (1992). Narcissism, shame, masochism, and object relations: An exploratory correlational study. *Psychoanalytic Psychology*. 9, 489-508.
- Kern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Aronson.
- Little, T. D., Rhemtulla, M., Gibson, K., & Schoemann, A. M. (2013). Why the items versus parcels controversy needn't be one. *Psychological Methods*, 18(3), 285-300.
- Linder, J. R., Crick, N. R., & Collins, W. A. (2002). Relational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in Young Adult's Romantic Relationships: Association with Perceptions of Parent, Peer, and Romantic Relationship Quality. *Social Development*, 11(1), 69-86.
- Loudin, J. L., Loukas, A., & Robinson, S. (2003). Relational aggression in college students: Examining the Roles of Social Anxiety and Empathy, Aggression

- Behaviors, 29, 430-439.
- Lorenz, K. (1966). *On Aggression*.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 Marsee, M. A., Kimonis, E. R., & Frick, P. J. (2004). Peer conflict scale. Unpublished rating scale. University of New Orleans.
- Maccoby, E. E., & Jacklin, C. N. (1974).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Maslow, A. (1987). *H. (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 Merrell, K. W., Buchanan, R., & Tran, O. K. (2006). Relational agg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review with implications for school settings. *Psychology in the School*, 43(3), 345-358.
- Ostrov, J. M., & Houston, R. J. (2008). The Utility of Forms and Functions of Aggression in Emerging Adulthood: Association with Personality Disorder Symptomatolog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 1147 - 1158.
- Olweus, D., Mattson, A., Schalling, D., & Low, H. (1980). Testosterone, aggression, physical, and personality dimensions in normal adolescent males. *Psychosomatic Medicine*, 42, 352-269.
- Parke, R. D., & Slaby, R. G. (1983).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In E. M. Hetherington (Ed.), *P. H. Mussen (Series Ed.),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pp. 547-642). New York: Wiley
- Patterson, C. J., Kupersmidt, J. B., & Griesler, P. C. (1990). Children's perceptions of self and of relationships with others as a function of sociometric status. *Child Dev.*, 61, 1335-1349.
- Prather, E., Dahlen, E. R., & Nicholson, B. C. (2012). Relational Aggression in College Students'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21(7), 705-720.
- Salmivalli, C. (2001). Feeling good about oneself, being bad to other? remarks on self-esteem, hostility, and aggressive behavior. *Aggressive and Violent Behavior*, 6, 375-393.
- Rose, A. J., Swenson, L. P., & Waller, E. M. (2004).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and perceived popularity: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concurrent and prospective rel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40(3), 378-387

- Ruble, D. N., & Martin, C. L. (1998). Gender development. In W. Damon & N. Eisenberg,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Child psychology in practice*(pp. 933 - 1016). New York: Wiley.
- Stallman, H. M. (2010). Psychological distress in university students: A comparison with general population data. *Australian Psychologist*, 45(4), 249-257.
- Storch, E. A., Bagner, D. M., Geffken, G. R., & Baumeister, A. L. (2004). Association between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and psychosocial adjustment in undergraduate college students. *Violence and Victims*, 19, 689-700.
- Sullivan, H. S. (Ed.). (201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Routledge.
- Werner, N. E., & Crick, N. R. (1999). Relational aggression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in a College sampl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8(4), 615-623.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590-597.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생각과 태도를 이해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는 ‘옳고 그른 것’이 없으며, 평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을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연구 자료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는 **익명으로 실시되며, 설문의 응답은 순수한 학문적 연구를 위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설문에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상담전공
 지도교수 : 김택호 교수님
 연구자 : 박다영(dy8448@hanmail.net)

* 다음은 귀하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부분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는 몇 학년이십니까?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기타 ()
3. 귀하의 가족 관계는 어떻습니까?
 ① 아버지, 어머니 모두 계신다 ② 아버지만 계신다 ③ 어머니만 계신다
 ④ 두 분 모두 안 계신다.
4. 귀하를 포함한 형제 수는 몇 명입니까? ① 외동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5. 귀하는 형제 중 몇 번째 입니까?
 ① 외동 ② 첫째 ③ 둘째 ④ 셋째 ⑤ 넷째 ⑥ 넷째 이상

1. 관계적 공격성 척도

다음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해본 경험이 없는 질문은 자신이 할 가능성이 높은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번호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1	게임이나 경쟁에서 이기려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	①	②	③	④
2	다른 사람을 놀리는 것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3	놀림당하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무언가를 부술 것이다.	①	②	③	④
4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때때로 그 사람에 대해 뒷말을 한다.	①	②	③	④
5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싸움을 건다.	①	②	③	④
6	나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은 사람도 내 집단에서 의도적으로 제외시킨다.	①	②	③	④
7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소문과 거짓말을 퍼뜨린다.	①	②	③	④
8	누군가 나를 다치게 하면, 결국 싸움으로 번진다.	①	②	③	④
9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이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10	누군가 나를 짜증나게 하면, 친구들에게 그 사람을 좋아하지 말라고 얘기 한다.	①	②	③	④
11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을 위협한다.	①	②	③	④
12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때, 내 자신이 강하고 대단한 것처럼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13	누군가 얼마 전에 나에게 한 일 때문에 그 사람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	①	②	③	④
14	누군가 나를 위협하면, 결국 싸움으로 번진다.	①	②	③	④
15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 새로운 친구들과 사귈다.	①	②	③	④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17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쪽지를 써서 돌린다.	①	②	③	④
18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위협한다.	①	②	③	④
19	인기 있으려고 다른 사람에 대한 뒷말을 한다.	①	②	③	④
20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면, 그 사람을 다치게 한다.	①	②	③	④
21	나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고의적으로 못되게 군다.	①	②	③	④
22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 그 사람이 나쁘게 보이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23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친구를 뺏으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24	다른 사람을 어떻게 다치게 할지 신중히 계획한다.	①	②	③	④
25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면, 그 사람에게 물건을 던진다.	①	②	③	④
26	다른 사람에 대해 뒷말을 하면, 내가 인기 있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27	누군가 얼마 전에 나에게 한 일 때문에 그 사람을 다치게 한다.	①	②	③	④
28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게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29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 대한 소문과 거짓말을 퍼뜨린다.	①	②	③	④
30	내가 말다툼이나 몸싸움을 했을 때, 보통은 생각 없이 한 행동이었다.	①	②	③	④
31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면, 그 사람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	①	②	③	④
32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말을 안 건다.	①	②	③	④
33	나보다 작은 애들을 해코지하는 것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34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면, 나는 그 사람의 친구를 뺏으려 한다.	①	②	③	④

2. 내현적 자기에 척도

다음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해본 경험이 없는 질문은 자신이 할 가능성이 높은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번호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잘 대해주기를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3	비판 받았을 때 나는 쉽게 굴욕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나를 위해 많은 돈을 쓰기를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5	많은 고민을 했지만 아직도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나를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유명한 사람처럼 그려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너무 애쓰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가끔 남의 비평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다른 사람들이 부탁을 해올 때에 때때로 짜증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10	가족들 중에는 내가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에게 즐거운 일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다른 사람이 자기 문제로 와서 내 시간을 요구하거나 공감해주기를 요구할 때 말은 못해도 괴롭고 귀찮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내가 잘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속기보다 차라리 남을 속이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내게 부족한 것(예: 외모, 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질투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18	때때로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내 자신을 주장하지 못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봤을 때 내 인생은 남들보다 불행한 일이 더 많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0	내 삶의 목표는 비교적 명확하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22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아 자존심이 상했던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내가 하는 일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여러 가지 일에 모두 뛰어나기를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25	사람들이 나의 결점을 알아차릴까봐 자주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26	내가 보잘 것 없는 존재로 느껴질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필요하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어떤 모임에 참석하든 항상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진 자리에 앉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내가 다음에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30	직업을 통해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1	나는 창피스러운 일을 당하면 두고 두고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해 활기가 적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사람들이 왜 나의 장점을 좀 더 알아주지 않는지 의아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4	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나 친하지 않은 사람 앞에서도 별로 긴장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5	나는 나에게 득이 될 때만 '공평의 원칙'을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조차도 종종 매우 외롭고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37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만족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8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고 높이 평가해주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39	나는 혼자서는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40	요 며칠 동안 나는 계속 슬프고 우울했는데 쉽게 이런 기분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41	누군가가 보고있는 자리에서 일하는 것은 아주 힘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42	나는 일의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43	항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받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44	나의 문제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정말 모른다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5	기회만 된다면 나는 죄책감 없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한국 대학생 거부민감성 척도

다음은 중요한 타인 또는 여러 대인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 가를 알아보는 질문들입니다. 각 질문을 주의 깊게 읽은 후,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상황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만일 그러한 상황에 처할 경우를 상상하면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되면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데이트 신청이 거절당한다면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3	결국 나를 떠날 것이라 생각되면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4	거부 당했다고 생각되면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5	다툼을 때, 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면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데이트 신청이 거절당할까봐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데이트 신청은 거절당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SNS나 메신저로 연락을 했을 때 답이 오지 않을까봐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9	배신당하거나 버려질까봐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거부당했다고 생각되면 다시는 제안하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거부당했다고 생각되면 앞으로는 깊은 관계를 맺기 힘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거부당할 것이라 생각되면 거리감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13	거부당할까봐 관계를 먼저 끊으려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를 보고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거부당했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다면 거부당했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 앞에서 문을 광 닫고 나간다면 거부당했다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 다시 한번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